

# 계절 샤프트 속의 가족공동주의\*

—이순의 우리들의 아이 를 중심으로—

전 해 자  
(경원대학교)

## 1. 머리말

1960, 70년대만 해도 서구의 경우는 탈근대의식 속에 근대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확신이 여지없이 와해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독일 과학자 베르너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의 원리를 비롯해서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관점주의 이론과 법칙의 기호화에 열중하는 탈근대의 시대로서 미국의 사회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2001, 281-92)에 의하면 이 새로운 세계는 비객관적이며 우발적이고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시나리오로 엮여 있어서 아이러니, 역설, 회의가 득세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하이퍼현실로 현대인간의 의식구조를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은 가속화되고 인간의식은 유동적이며 역사적 시간감각은 소멸하고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열정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나 1960, 70년대의 한국사회는 그래도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감각에서 과거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20세기 중반이래 세계는 접속의 시대 속에 소유의 종말을 코드화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소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산업화는 1970년대 초반부터 공업화에 진입하는 중산자가 과반수를 넘기 시작했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변화순 2001, 27) 근대화과 테일러리즘의 확산<sup>1)</sup>, 합리화, 생산성의 증대와 특히 1980

---

**[주요어]** 계절 샤프트, 가족공동주의, 우리들의 아이, 1970년대, 한국사회, 산업화, 중산층, 상승욕구, 소유, 전통

\* 본 연구는 2001년도 경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변화순 (2001,27) 재인용. 생산활동의 정신적, 구조적 합리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과학적 관리법의 시조라고 일컫는 테일러가 실무에서 겪은 체험적 연구에 의해 발전, 확립시킨 경영관리의 합리적 사상 내지 이념을 말한다.

년대 이후는 서비스산업과 정보화의 발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징후 발견 및 도시화, 상업화, 가족의 이동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소비문화 증대와 편의주의, 상품화증대를 들 수가 있다. 결국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특성은 무엇보다 대규모 모공장제 생산에 따른 자본주의 및 경제우선적 사회(조혜정 1988, 109)의 등장으로 산업화는 근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화는 중산계층의 형성에 준거가 되는 것으로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의 욕구를 촉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앙리 르페브르식으로 얘기한다면(앙리 르페브르 1995 참고) 산업화, 공업화는 근대성이며 근대성은 일상성이고 또한 일상성은 도시성과 등식을 이룬다. 르페브르에게 일상성은 욕망의 시간이며 소멸이며 동시에 부활이다(앙리 르페브르 1995, 246-7). 일상성은 생산관계의 산물로 자본주의의 경제지배하에서는 일상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교환가치 경제체제의 일상성의 지배하에서 카프카의 그레고리 잠자적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는 현대인의 양상이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순의 연작소설 『우리들의 아이-아들·1-아들·8』은 1970년대 후반기의 산업화에 따른 근대성, 일상성, 도시성에 대한 양가성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우리들의 아이』에 반복되는 모티프는 산업화와 맞물려 가족의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또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상승하고 싶은 욕망이 주조를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근대의 자본주의가 가부장적 전통의식과의 상관관계에서 별반의 갈등없이 화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순소설을 마치 봉건시대의 내간문학에 근사하다(최원식 1983, 234)고도 하며 “도시적인 것, 현대적인 것이 토속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한데 얽혀있으면서, 그 어긋장을 놓으며 투박스럽게, 그러니까 갈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능적으로 마땅한 자리에 설켜 있음으로 해서 두 개의 다른 면모가 보기 좋게 모양짓고 있는 것이다”(김병익 1983, 237)는 비평도 있다.

이순의 이런 글쓰기는 리타 펠스키의(리타 펠스키, 1998) 근대성의 양가성이론이 그런대로 합리성을 갖는다. 『우리들의 아이』에 나타난 1970, 80년대 한국사회의 경제구조 변화 속에 중산층으로의 상승욕망이 전통적 가부장제란 생활체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해 나갔는지 르페브르와 펠스키의 이론 등을 참고로 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 2. 소유의 시작 - 중산층으로의 상승욕구

이순의 연작소설 『우리들의 아이』는 아들①에서 아들⑧까지 총 8편으로 텍스트의 작중인물명이나 사건, 상황설정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이야기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8편 중 초점화자가 인칭구분 없이 대가족의 맏며느리인 텍스트가 5편이고<sup>2)</sup> 초점화자가 미혼의 대학원 조교인 '나'가 1편<sup>3)</sup>, 시동생이 초점화자가 된 텍스트가 2편<sup>4)</sup>으로 8편 중 5편이 대가족의 장자부가 초점의 화자가 된다. 맏며느리를 중심으로 설정된 주변인물들은 사회생활에서 시행착오를 자주하는 남편과 힘겹게 학비를 대주어야 하는 시누이와 시동생, 중풍에 걸려 대소변을 돌봐 주어야 하는 조모, 허욕으로 가산을 거덜내 경제권 실종의 문제아 취급을 받는 시부, 맹목적인 아들 선호도의식의 시모, 고자이면서도 양아들의식에서 깨어 나지 못하는 작은 아버지 등으로 즐기치게 반복되는 공통화소는 중풍에 걸린 조모까지도 기품있게 주장하는 가부장의식이다. 가장중심주의적 사고에서 가장인 남편은 군주이고 곧 경제라는 의식과 가족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아들선호사상, 이 속에서 불평 한 마디 없는 장자부는 남편의 승진 실패와 실직 등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화소는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의 상승하고 싶은 욕망에 가족들이 다 공동으로 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텍스트의 결말은 전진과 희망이다.<sup>5)</sup>

우리 한국사회의 경우, 본격적인 산업화는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 현대인들은 강제된 시간 속에서<sup>6)</sup> 삶을 산다. 일상성 속에는 객체로서의 '나'만 있을 뿐 주관은 없으며 소유와 욕망이 실제와 상상사이에서 복합적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집, 아파트, 가구, 요리, 휴가여행 등에 사람들의 욕망이 투사되며 욕망의 자기소유를 끝

2) 「그물」-아들 · 2, 「병어회」-아들 · 3, 「우리들의 아이」-아들 · 4, 「아들」-아들 · 5, 「못난 여편네는」-아들 · 8

3) 「개나리울타리」-아들 · 1

4) 「아가천사」-아들 · 6, 「모르는 事情」-아들 · 7

5) 초점화자가 시동생인 「아들 · 6」, 「아들 · 7」이나 초점화자가 조교인 「아들 · 1」 역시 주변배경설정은 동일하다.

6) 르페브르(1995, 92)는 시간의 활용을 비교의 방법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석했다.

1. 직업적 일을 하는 의무의 시간 2. 여가의 시간인 자유의 시간 3. 일 이외에 잡다하게 필요한 강제된 시간이다.

없이 유동적으로 시도한다.

『우리들의 아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류층에서 중산층,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진입하려는 가족공동의 일상적 욕망이 가족전원의 의기투합하에 전개되는 것이 핵기능을 하며 아래와 같은 서사적 상황을 동반한다.

첫째, 초점화자의 위치라 볼 수 있는 장자부의 중산층으로의 상승욕망이 텍스트전체를 지배한다. 「아들·4」에서 초점화자는 사회과 교사 신정혜이다. 그가 교직원실에서 동료교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근검절약과 저축을 꾸준히 실행해서 변화가에 일급 삼천만원 상당의 자택을 구입한 일이다. 그가 셋방신세를 면하고 집을 샀다는 사실은 남편의 승진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글세 벌써 삼년 전에 그 아들 뭍으로루다 사두었대지 뭐니. 그런 시부모 혼치 않다. 잘 모셔라, 그랬더니 혜진이란 년 말하는 것 좀 봐라 글세. 겨우 스무평짜릴 갖고 뭘 그래. 내 친구 아무개는 삼십육평에서 살고 또 아무개는 오십이평에서 사는데, 이리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막 야단쳤지. 이년아, 워만 쳐다보면 한이 있는 줄 아니? 아래도 좀 내려다 보거라. 당장 정혜언닐 좀 봐라. 단칸 셋방에서 벌써 몇 년째 사는지 아니? 그것도 썩 빠지게 나가 별면서 하구 말이지(이순 1983, 199)

위의 말은 집 한 칸 없는 남자와 결혼한 정혜를 ‘깁죽거리’대는 고모의 말이다.

아직 모른다. 두고 봐라. 두고 봐도 한참 두고 봐야 알지. 그까짓 스무평이 별거냐? 김서방 그거 부럽게 할 사람 아니다. 아니고 말고. 우선 혜진이 남편은 겨우 2차 k대 출신인데 김서방은 서울대가 아니냐? 허우대도 혜진이 남편은 김서방 발뒤꿈치에도 못 미치지, 아암, 뒤꿈치에도 못 미치고 말고(이순 1983, 199)

라고 딸을 위로하는 정혜모친의 반응은 결혼초기부터 셋집을 떠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피임을 한 딸의 마음과 동일하다.

『병어회』-아들·3의 초점화자 ‘나’역시 「아들·4」와 별다르지 않다. ‘내’가 결혼해서 바라는 것은 적어도 “명색이 미니이층집들이 손바닥만큼씩한 면적으로 딱지닥지 달라 붙어 있고 아래채들은 하나같이 세를 놓아 솜틀집, 만화가게, 구멍가게, 미장원, 봉구완제공장들로 울긋불긋한 동네”(이순 1983, 201)에서 자란 남편을 내가 자란 환경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60년도 초반부 텔레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을 때 월부일망정 빠지지않고 안테나를 기와지붕에 꽂았으며 전화신청을 해서 문명

의 이기를 머리맡에 놓았고 대망의 70년대로 들어서면서 투 도어 냉장고를 시속따라 들여 놓았던”(이순 1983, 201) 것으로의 자리바꿈이다. 그것은 하류층인 남편가족의 환경을 상류층도 아닌 중류층까지만이라도 올리려는 안간힘이다. 「아들·3」처럼 “시 아버지 될 분은 S상사 상무이사서…여의도에 아파트를 사놨대. 뭐니뭐니해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살아야 된다는 게 시아버지 될 분의 의견이서. 날 얼마나 귀여워하시는지 몰라. 이 반지도 날 직접 데리구나가서 골라주신거야. 어때, 디자인이 세련됐지? 이거 이래봐도 한 카라트다.”(이순 1983, 202) 라는 초급대출신의 고등학교 동창생 말에 대한 자기 합리화도 「아들·4」와 같은 상황이다. 이것은 ‘나’에게 욕망이 아니라 소박한 욕구이다.

‘나’에게 욕구는 시부의 욕심과 다른 것이다. 욕망은 불교에서 의식의 맨 밑바탕 즉 12因緣 중 가장 첫 번째 것인 無明으로(강영계 2001, 22) 썩어나 虛 즉 온갖 만상을 만들어 내는 촛불로 여겨진다. 그래서 촛불을 붙어 꺼버림으로써 깨달음의 경지인 三昧에 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대기업 엘리트사원인 남편이 퇴근 후 과외지도까지 하면서 돈을 벌거나 ‘나’ 역시 여중영어교사로 취직해 있으면서 남편의 과외지도까지 떠맡는 것은 오로지 중산층을 향한 소박한 소망이다. 이것에 대한 집념은 자신이 과외지도를 하는 학생의 집에 갔을 때 더욱 확연해지며 동시에 자신이 하류층집안의 며느리란 점을 확실히 알게 된다.

개별지도를 받는 학생의 집은 하나같이 부자여서 겨울엔 온실처럼 따뜻하고 여름엔 에어컨으로 가을날씨같이 서늘했다.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우리 부부가 쓰는 방만큼 큰 면적에 거기에 앉아 용변을 본다는 것이 황송스런 번쩍이는 흰색의 양변기가 있었다. 목욕통은 멋진 무늬의 고무커튼으로 가려져있고 유리창 속엔 외제삼프터 외제 로션, 화장수병들과 두텁고 색깔 화려한 타일들이 차곡차곡 놓여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겨울이 크고 두꺼웠다. 거기에 얼굴을 비추어볼라치면 어느새 눈가장자리에 거뭇거뭇 기미가 앉아있고 볼따구니는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이순 1983, 209-10).

과외만은 그만 두고 싶어도 이미 타서 써버린 계 두개와 두 개의 적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큰 집으로 이사가는 꿈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수세식변소와 입식 부엌이 있는 깔끔한 양옥집 별바른 뜨락에 서서 그네타는 내 아이를 내려다보고 썼는 꿈을 밤에 꾸는 일이 있었다. …내 모습은 한결같이서 핑크색 홈드레스를 입은 화사한 모습으로 잔디가 시원한 집 앞에 서서 솜사탕보다 더 부풀은 옷

음을 웃고 있곤 하였다.(이순 1983, 210)

중산층으로의 편입이란 꿈을 위한 투지 앞에서는 친정동생의 비꼬는 말도 관심 밖이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입식부엌과 방 세 칸짜리 미니이층집을 마련하고 적어도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중산층으로서의 요건 다시 말해서 큰 집과 냉장고와 전화를 장만하는 것 그리고 병어같이 싼 생선보다 광어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을 때 그 만족감이 가족 모두가 희희낙락한다. 결국 '나'에게 있어서 중산층으로의 상승이란 큰집과 냉장고와 전화를 장만하는 것과 병어같이 싼 생선보다 광어를 먹는 것이다.

둘째 「우리들의 아이」의 가족에게 경제는 돈이고 돈은 곧 권력이며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인 가부장 남편은 고전주의식 절대군주나 마찬가지이다. 가부장의 권위는 재력과 관련되며 재력에 따라 호칭도 바뀌지고 대접도 달라진다.

재산가였던 숙부가 경제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호칭이 바뀌면서 경멸의 대상으로 된 것은 가족의 다양한 기능 중<sup>7)</sup> 경제적 기능만을 중시하는 근대적 가족경제학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들·2」에서의 혜옥의 시부나 「아들·3」의 '나'의 시부는 가족경제에 보탬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격 없는 가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문제아 취급을 받는다. 「아들·2」에서 초점화자 혜옥의 남편 위치는 부모와 형제의 의식주 및 복지를 한 몸에 맡은 선의의 독재 군주이다. 남편의 호령소리에 온 식구가 찢찢 때며 불안해 하기도하며 생기를 되찾는 역설을 초래하기도 한다.

남편은 부모형제의 기본 의식주는 물론이고 복지제반을 한몸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답게 대단한, 말하자면 선의의 독재군주였고, 남편의 신민(臣民)들은 자연자원이란 전혀 없고 인구는 엄청난 그들 약소국 백성에게 있어 그 군주의 전단(專斷)은 곧 백성을 먹여 살리겠다는 결심임을 일찍이 터득하고 있었다(이순 1983, 146).

이 경우, 남편의 권위는 전통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말하자면 남성중심주의에 뿌리를 둔 유교적 위계질서와 계급중시에서 온 것이기보다 가족집단의 복지생계를 책임

7) 문숙재(2000, 20)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애정적, 생물학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이 있다.

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아들·5」의 경제력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가족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순시누이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에 따른 가정의 변화로 전통사회에서 경제력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권을 인정하고 가장은 가족원이 시인하는 권위공간을 집안에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변화이다.<sup>8)</sup>

셋째, 「아들·2-4」의 초점화자 혜옥, 나, 신정혜의 직업이 오로지 중산층으로 상승하기위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전혜자 1987, 251-5) 20년대소설의 경우, 작중여성인물은 남편이 무기력해도 옆에서 지켜만 볼 뿐 남편의 가장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신하지 못했다. 그것에 비하여 30년대 소설의 경우 작중 여성인물들은 적극성을 띠고 현실에 대처해서 직면해 나간다. 그것은 남편이 무직이거나 무능한데서, 또는 남편이 죽고 없거나 아니면 미혼의 딸이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경우이다.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지배적인 이유는 첫째 남편이 무능하거나 실직, 또는 심한 열등 콤플렉스에 젖은 인물이거나 병인이어서 생활력이 전혀 없는 경우, 둘째 출가하지 않은 딸이 부모 및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 셋째 남편의 사망으로 생활을 책임지거나 남편이 방탕해서 집을 떠난 경우 아내가 남편대신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전혜자 1987, 253). 대체적으로 20, 30년대의 경우는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배적이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는 희소했다고 볼 수 있다. 「아들·2-4」의 경우는 산업화이후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등장한 소위 맞벌이부부라고 볼 수 있다. 맞벌이가족은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유형으로(이정숙 2000, 80) 취업유형을 분류한다면 내조형맞벌이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이영숙 2000, 101). 세 텍스트의 경우, 아내의 직업은 생계위험 때문이 아니라 보다 나은 가족환경을 위한 말하자면 셋집을 모면하고 중산층 아파트로의 진입을 위한 취업으로서 초점화자의 성역할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며 남편에게 종속된 위치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그날 저녁 퇴근해 돌아온 남편에게 전말을 고하면서 정혜는 짙짙 눈물을 쫓다. 그러면서 「나 인제 학교 그만 둘래요. 이젠 아주 지긋지긋해 신물이 나」 했다. 남편도 심각한 낮이었다. 「학교 관두고 이 집 팔아서 영동이든지 반포든지 이사갔으면 원이 없겠어」

8) 이광규(1996, 122-3) 가장권이란 즉 집을 외부에 나타내는 대표권이고 집안식구를 다스리는 감독권이며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이다.

……「난 원래 가정적인 여자예요. 직장같은 건 애당초 내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싫은 걸 억지로 계속했던 건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제 집도 생겼으니…(이순 1983, 206-7)

신정혜가 사회과 교사란 직업을 가진 것은 자아실현이나 사명감 또는 소명의식에서가 아니라 하류층인 시집의 환경을 적어도 정혜가 살던 환경 즉 중산층으로 올려 놓기 위해서이다. 「아들·3」의 영어과 교사인 ‘나’의 환경 “무르고 싶다는 기분이 그토록 강렬하여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없었다면 아무리 그와 더불어 지내온 날들이 적지 않은 것이었다손 치더라도 수돗물을 이십여 년간 마시고 살아온 나였다. 수돗물뿐이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60년도 초반부 텔레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을 때 월부일망정 빠지지않고 그 창경원 사슴뿔같은 안테나를 기와지붕에 꽂았으며 바람부는대로 전화신청이란 걸 하여 문명의 이기를 머리말에 놓았고 이어 대망의 70년대로 들어서면서 투 도어 냉장고를 시속따라 들여놓았던, 아니, 무엇보다 딸자식을 대학공부를 시킬 수 있었던 집안에서 자란 내가”(이순 1983, 201)도 「아들·4」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이 경우, 조혜정의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조혜정 1998, 109-10)이 참고가 된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공업자본주의화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화는 보편화되고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는 확고히 뿌리를 내리게 되어 여성은 일터에서 경제생산에 참여하는 남성가장을 위하여 가정에 남아 가사노동을 하고 정서적 위안을 주는 아내로, 그리고 출세할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취학전 아동의 양육소로 그리고 경제생산자의 휴식처로 전략한 가정의 관장자로서 여성은 여전히 맹활약을 하나 그들의 활동은 주관적인 인정에 의존하는 사적 노동에 그칠 뿐이다. 이 시기의 가부장제의 유지는 국가기구 및 일터의 조직화 차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생리적 성차와 ‘남성다움’, ‘여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성차를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조혜정 1998, 111).”

위 글에서처럼 「아들·2-4」의 초점화자는 고학력의 여성이고 남편과 경제권에서 동등한 주역이면서도 스스로 가정의 주변에서 남편에 의존하는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가부장제의 남성주인의식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 3. 소유와 전통의 이중주

「아들·1-8」은 산업화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핵가족중심이 아니고 대가족구성원들의 담합에 의해서 중산층, 상류층으로의 상승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성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다. 직계가족 또는 친척가족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개념의 가족으로 「아들·4」는 부부가족중심으로 담론이 비록 전개되지만 실제 담론이 전개되는 환경설정은 적어도 3세대가족임을 인지하게 되는 분위기이다.

일상화 즉 근대화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가치적이며 종교적인 문제를 의미한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11). 즉 전통과 공동체주의적 가치는 붕괴되고 개인화, 세속화, 문화적 분화, 편의주의, 도시화, 관료화 그리고 합리화란 특성을 지닌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11). 특히 1960년대이후 우리나라의 가족형태, 구조, 기능 면에서의 가족변화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 등을 통해서 연구한 사례를 보면<sup>9)</sup> 전통적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가족과 사뭇 다른 근대가족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화한 경우는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광규의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에 의하면(이광규 1996, 55-64) 가족의 외형적 변화는 첫째 가족의 소수인화경향 둘째 핵가족화경향 셋째 가족의 고립화현상을 들고 있다. 또한 현대가족의 내적 현상인 기능의 변화는 의식주를 포함한 경제적 기능과 현대가족이 가정 안에서 가장 중시하는 휴식의 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무엇보다 부자중심의 전통가족중심에서 부부중심의 수평구조라고 볼 수 있다.

「아들·1-8」에 나타난 3세대 가족양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통사회 윤리 말하자면 유교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근대적 사고 속에서의 가족구조와 산업사회의 이율배반적인 관계를 들 수 있겠고 둘째는 일상성과 공업화의 양가적 특성인 풍요와 박탈의 사회(앙리 르페브르 1995, 206)로부터의 인식처로서 전통가족사회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리타 펠스키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근대사상에 나타나는 '향수패러다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아이』는 서사구조가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구조가 아니고 중산층으로의 상승욕망

9) 이정숙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회편의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 이영숙 외의 「가족문제론」 등 가족과 관련된 서적이 많이 눈에 띈다.

을 향해 상호 화합하는 가족구조란 점에서 전자보다 후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불안정성을 지닌 근대성의 양가감정으로 전통을 현재의 욕망과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규정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아들·1-8」에 나타난 전통과의 대립아닌 합주현상은 첫째 양자의식 둘째 장자의식 셋째 전통적 가부장제하의 가족구성원들의 담합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아들·7」은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전통적인 부자관계의 갈망이 작중화자 '나'의 숙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4대째 양자마다 고자가 된 집안에서 숙부 역시 고자가 되어 친족 말하자면 종조모, 조모, 당고모, 당숙모 등의 따가운 시선 속에 '나'의 모친인 장자부는 숙부의 후사입양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숙부의 '나'에 대한 양자 입양에 마음두기를 비롯해서 집안 어른들의 설유 및 눈치를 주는 행위는 종손인 '나'를 위시해서 동생들까지 마음의 반발을 일으키게 한다.

둘째 아들이라는 입지 조건부터가 그러했거니와 숙부는 애초부터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설날 세뱃돈이나 추석 옷가지선물에 있어서 다소나마 형이나 동생과 차이를 두는 게 누구 눈에나 두드러졌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 올 때면 꼭 나를 불러 오래오래 내 머리를 쓰다듬곤 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조마조마한 눈빛도 눈빛이려니와 우선 내가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손 입자가 고자라는 것, 이 사람의 양자가 되면 고자가 된다는 것, 고자란 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 운명의 칙칙한 냄새마저 풍기며 내 어린 심중을 쇠사슬로 친친 졸라매듯이 하는 것이어서 나는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숙부의 손 밑에서 마냥 짜부라들곤 하였었다(이순 1983, 196-7).

숙부는 종중자손으로 양자선택이 어렵게 되자 전기기술을 전수해 준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양가란 청년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넘겨 줄려고까지 한다.

작은 아버지 집에 당도하여 본 풍경이 어쩐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도 그 화끈했던 뒤 끝 때문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작은 어머니는 어딘가 외출을 하고 없고 작은아버지 혼자 갓난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다(이순 1983, 206-7).

젖병을 물리며 아기를 어르는 숙부의 눈빛에서 '나'는 어머니같은 진한 눈빛을 인식하며 그런 숙부에게 연민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숙부에게 양자문제는 생명줄이며 젖줄이다. 가난하고 헐벗어도 가족의 대를 이어줄 부계혈연 중심가치관은 약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자인 숙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가문의 어른들에게 내재된 현상으로 산업화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갈구되는 역설적 의식이라 볼 수 있다.<sup>10)</sup> 특히 대들보에 백년 묵은 먹구렁이가 살고 있어서 대대로 고자가 된다는 씨브 플로트는 「아들·2」의 시부사업 실패의 점괘보기, 「아들·5」의 증손자 목에 무명실타래 걸어 주기 및 무당푸닥거리 등과 간텍스트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장자의식에 대한 부동의식이다. 우리나라는 부계가족의 전통으로 직계가족이며 혈연성을 중시하므로 장남은 가족구성에서 무척 중요하다. 「아들·6」은 동생이 본 형님이야기이다. 동생입장에서 형은 사는데 아니고 견디는 것이다. 형은 장남의 식이 투철하다. 집안일을 계승해서 본가를 이루고 부모 및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천직으로 안다. 그래서 동생 명철에게 형은 곧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부친이 작고하면서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또 뒤를 돌보아” 주라고 유언한 것도 형이 장남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철이 보기에 형수는 인내심과 희생심이 강하고 당당하다. 만머느리답게 시동생, 시누이를 잘 거느리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형수는 시동생에게 마치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존재이다.

하긴 어머니와 삼남 이녀, 그리고 형내외와 조카 둘의 대가족에게 방 세 개에 마루 하나는 좀 과했다. 아니 그 전에 여름까지만 해도 방은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였다. 왕년에 작은집 식구들이 썼던 뜰아랫방을 누이 돌이서 어렸을 적부터 쓰고 있었는데 그 방을 세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까닭이다. 과년한 두 딸과 같은 방을 써야하는 불편함이 그렇잖아도 짜증이 나 있던 어머니였는지도 모를일이고 또 도대체 아버지가 남기고 간 구옥에서 어떻게든 일신해 나올 아무런 궁량도 해 보는 일이라곤 없는 맏아들에 대해 모친다운 불만을 남모르게 쌓아왔던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이순 1983, 154).

영세출판사 부장월급으로 불가피하면 조카들까지 떠맡아야 하는 장남의식은 가족들의 불만도 의연하게 받아 넘긴다. 본인의 의지나 능력에 관계없이 대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당연함이 「아들·6」에서는 건재하고 있다.

셋째 「아들·1-8」은 3세대 가족환경에서 대가족이 중산층으로의 상승을 향해 화합의 목소리를 내며 공동공간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70, 80년대만 해도 사회가

10) <아들·1>은 초점화자 '나'가 대가족의 몰락으로 신흥가족 그것도 원수가 되는 집에 양아들로 들어간 '나'의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대학원조교의 현재시점에서 학교의 노인 정원사와 그 아들의 모습과의 유사성에서 연상의 구조로 서사화한 경우이다.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실상 전통적 가부장제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부모, 형제, 친족 사이도 소원해지는 경향이 현저한데 아들시리즈에서는 경제문제와 관련되어 가족들이 특히 담합하고 있다. 「아들·2」, 「아들·3」, 「아들·6」은 시조모, 시부모, 시누3, 시동생2하는 식의 8식구 내지 9식구를 가장이 거느린 가정이고 그 외 「아들·1」, 「아들·4」, 「아들·7」, 「아들·8」 등도 숙모, 고모, 당고모, 조모, 당숙모 등이 가정사에 참여하는 친족집단구성으로 되어 있는 전통사회의 대가족 분위기이다. 이것은 소위 개인은 가족에 속하고 가족의 안전은 사회의 안전이며 사회가 안전하면 국가가 안전하다고(이광규 1996, 13)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전통사회의 사회철학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유교정신으로의 회귀 또는 갈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향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증산층상승에 걸림돌이 되면 문제아취급을 받는다. 「아들·2」의 경우가 그것이다. 잦은 사업실패와 돈 날리는데 이끌인 난 초점 화자 혜옥의 시부는 가정이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이데올로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의 어른이라도 근면성과 성실성의 결여로 인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아들·1-8」은 산업사회에서도 전통가족사회가 진정한 생활과 교화의 공간임을 느끼게 하는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다. 가족구성원 개인개인의 목표는 오로지 증산층, 상류층으로의 편입을 향한 전진이면서 그것이 산업화의 보편적인 핵가족 하에서의 전진이 아니고 가족공동운명체로서의 행진이며 또한 가족공동주의는 일상화, 산업화, 도시화의 반복적인 메카니즘 속에 자리잡은 심령적 오리엔탈리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 4. 급전과 낭만적 결말처리

소설에서 시작과 결말은 글쓰는 이의 생각이나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된다(롤랑 부르뇌프 1996, 90). 소설의 시작에서 문제는 제기되고 전개와 결말은 그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아들·1-8」은 대체적으로 작중화자 중심의 회상기법을 사용해서 수많은 플롯들이 가지를 뻗다가 결국은 중심이야기에 연결되는 서사구조가 지배적이다. 정적인 묘사 및 설명이 주조를 이루면서 독자들을 안심시키는 듯 하면서도 리버설로 독자들을 실망시키다가 다시 비교적 낙관적인 결말로 평안함을 유도한다.

「아들·1-8」을 초점화자 시각에서 시작과 전개과정에서의 급전, 결말로 도표를 만들어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작품이름	시작	급전	결말
아들·1	대학원조교 경순이 어린 시절에 풍지박산된가정을 연상	경순의 오빠 경찰이 원수의 집인 방영감네의 양아들로 들어감	교정의 개나리울타리와 아카시아 꽃냄새 속에 스무고개 게임하기
아들·2	연달아 사업실패를 하는 시부의 고추장사투자 제안에 대한 가족들의 냉대	유능한 남편이 PD란 직업을 실직	그물 안에 금빛고기가 뛰고 가족들이 희희낙락한 표정을 띄는 태몽을 꿈
아들·3	출신환경이 다른 남편과의 신혼생활 떠올리기	남편이 대리승진에서 실격되어 사표내기	우리만의 밑에서 솟아오르는 힘을 의식하며 가족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흐름
아들·4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 후 재벌상사에 근무하는 남편체면에 걸맞는 세를 주는 문제로 복덕방으로부터 반복해서 전화받기	승진을 기대했던 남편이 지방업소로 발령받음	남편직장의 지방이전으로 교사를 사직하고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와 아이 갖기 등이 포기되지만 아이를 낳은 세든 사람의 웃음앞에 꽃밭이 만발함을 느낌
아들·5	경제력있는 시누의 눈치를 보는 행순의 상황제시	남편실직	행순이 아들을 낳자 증손주 얻은 것에 천하를 얻은 듯 하는 시조모의 환호소리
아들·6	동생이 결혼 후 8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형을 회상하는 식으로 떠올림	두 형제가 힘을 합해 가정을 이끄는 것으로 생각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명철이 결혼을 함	가족생계의 뒷바라지에 지친 형의 뒷모습이 폐부에 찢림을 느끼며 형을 이해하게 됨
아들·7	‘나’의 8, 9세때 가난했던 시절 ‘나’에 대한 숙부의 양자맞아들이기 시도회상	숙부의 양자연기 시도가 여러 번 허사로 돌아감	숙부의 양자에 대한 갈망의 눈빛을 ‘나는 이해함
아들·8	신혼초 시숙모의 예단문제로 인한 새색시의 여자 팔자가 제시됨	남편이 승진시험에서 낙방하여 가출	실직해서 가출한 남편이 돌아오자 희희낙락함

위의 도표를 보면 첫째 작중화자가 현재시점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위치에 있음이 대부분이다. 8편 중 「아들·4」만 제외하고는 대가족시절에 대한 향수가 분위기를 지배한다. 어려웠던 시절의 전근대적 대가족생활의 과거가 산업화시대에 오히려 값있는 추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작중화자의 내면의식에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집안어른들의 전통의식에 별 저항감을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또는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든가 이해를 하는 식이다. 셋째 집안의 가장이 승진에서 탈락하든가 실직하는 식의 급전을 해도 가족들은 좌절보다 화합이나 단합 또는 우리가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식이다. 우리의식은 우리들의 아이로 세대교체되면서 아이들이 미래의 풍요를 약속하는 초월적 힘으로 알레고리화 된다.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어오면(강영안 1997, 246-7) 아이는 '타자가 된 나'로서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생산성(비옥성)'이다. 『우리들의 아이』는 우리 가족의 아이를 통해 절대적 과거가 새롭게 현재와 미래로 시작할 수 있다는 낭만적 의식을 결국에는 구현하고 있다.

## 5. 맺음말

이순의 연작소설 『우리들의 아이』는 60, 70년대 한국사회가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의 급진적인 발전에서 초래한 물질문화를 내집 갖기와 중산층 상승으로의 욕망투사로 리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꿈과 이데올로기의 대상으로 일상성 속에서 끈질기게 추구된 현실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가족문제와의 관련에서 산업화로 인한 변화를 대부분의 사회학자가 주장하듯이 소인수 가족화와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고립화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순의 산업화, 공업화는 오히려 전통가족문화 사회 속에서의 산업화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게젤 샤프트 속에서의 게마인 샤프트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그마한 내집 갖기를 시작으로 더 큰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투지를 지니고 서민층에서 중산층 그리고 상류층으로의 상승욕망을 향한 일구월심이 전통사회의 가족문화 속에서 야기되는 현상은 르페브르식으로 말해서 반일상성 또는 반근대성, 반도시성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근대성의 양가성으로 경제주의 이데올로기인 일상을 극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우리들의 아이』의 전통적 대가족적인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으로 3대가 함께 살면

서 오로지 장남이 대가족을 다 책임을 진다. 장남은 ‘힘센 칼’이다. 장자부인 며느리가 갖은 교사란 직업은 내집 갖기가 이루어질때까지의 시한부 직업이며 중산층으로 상승되고 상류층으로 비약하면 곧 그만두고 싶은 직업이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란 운명적 관계 속에 남편은 경제를 책임지는 독재군주이고 가장은 곧 경제란 동일의식에서 부모 형제 모두의 복지는 가족단합대회 즉 우리가족의 힘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의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기대를 건다. 그것은 가장이 사직서를 내거나 실직을 해도 우리가족의 단합대회로 좌절하지 않는 결말을 가져 온다.

이순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들로 구성된 혈연의 총체로 가족은 가정을 이루는 주체이며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가족만 있을 뿐이지 이웃은 없다. 한국의 현행 민법은 “나와 나의 처 그리고 내직계의 자손과 그 배우자뿐 아니라 나의 방계혈족인 친인척과 그 배우자 및 양자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통정하여 얻은 자식과 나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통정하여 얻은 자식까지도 적법한 법적 절차를 가진 후 모든 한가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의 직접적인 핏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비혈연적 존재들 까지도 법적으로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배장섭 2000, 32) 것처럼 광의의 개념에서 우리 대가족의 단합이란 즉자적 의식은 가족의 가장인 장자에게 그 가족내의 모든 것에 대한 자유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이 중류가정 완성으로 닥아설 수 있는 첩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담론의 결말은 전개과정에서의 급전이 있어도 거의 전통가족주의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60, 7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공업화가 서구의 산업화처럼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밀어 부치며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마치 1930년대식의 낭만적 리얼리즘의 낙관주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소위 계절 샤프트와 계마인 샤프트의 상호관계가 근대화의 본질적인 특성인 합리성과 과학성도 결여된 채 1930년대 리얼리즘식으로 결말을 처리하는 것이 한계라면 한계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70년대 사회구조와 사회의식과의 관계에서의 심층적인 연구 및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텍스트적인 연구가 특히 텍스트 결말처리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

- 李筭 連作 小說集, 『우리들의 아이』-아들 · 1-아들 · 8.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개나리 울타리」-아들 · 1  
「그물」-아들 · 2  
「병어회」-아들 · 3  
「우리들의 아이」-아들 · 4  
「아들」-아들 · 5  
「아가天使」-아들 · 6  
「모르는 事情」-아들 · 7  
「못난 여편네는」-아들 · 8

### 인용문헌

- 강영계. 『정신분석이야기』. 서울: 건대출판부, 2001.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서울: 문예출판사, 1997.  
김병익. 「소시민의 소박한 꿈: 가정소설의 의미」, 『우리들의 아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문숙재. 『가족경제학』. 서울: 교문사, 2000.  
변화순.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광규.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이영숙외,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2000.  
이정숙. 『가족문제』. 서울: 교문사, 2000.  
전혜자. 『현대소설사연구』. 서울: 새문사, 1987.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지사, 1988.  
최원식. 「성장소설의 가능성」, 『이순소설집』. 서울: 예전사, 1983.  
한국가족관계학회편.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 서울: 夏雨, 1996.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서울: 소명출판, 2000.  
롤랑 부르뇌프/김화영편역. 『현대소설론』. 서울: 현대문학, 1996.  
리타 펠스키/김영찬 · 심진경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서울: 거름, 1998.  
앙리 르페브르/박정자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主流 · 一念, 1995.  
제러미 리프킨/이희재역. 『소유의 종말』. 서울: 민음사, 2001.  
Braudel, Fernand.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_\_\_\_\_.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1979.



\_\_\_\_\_. *The Wheels of Commerce*. 1979.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Cooperation Doctrine in Gesellschaft:  
Lee Sun's *Our Children***

Hae-Ja Jeon  
(Kyung Wo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traditional family consciousness interacts with Korean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In *Our Children*, Lee Sun depicts a family's struggle within the turmoil brought about by rapid industrialization to escape from the ranks of the working class. It is well known that one of the consequences of industrialization was the breakup of the larger family structure into nuclear families, but Lee Sun presents Korea's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in the light of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culture before the breakup. In other words, he gives us a portrayal of Gemeinschaft in Gesellschaft in his description of the extended family's struggle to overcome the day-to-day pressures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The novel presents three generations of a traditional extended family. The eldest son is portrayed as a knife, strong and sharp. His wife has a temporary job that she hopes to give up once they own a house, which symbolizes the family's escape from the working class.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mily members reveals the core aspects of the ideology governing traditional extended families: the husband is the despotic monarch of the household, solely responsible for the family's economy; the husband is the sky and the wife the earth; and children (the more the better) are expected to lead to stability, welfare, and prosperity.

One curious aspect of this family relationship as portrayed by Lee Sun is the expectation that being the eldest son, who already is or will become the patriarch of the family, is the fastest way of reaching middle-class status. And, despite a slight reversal, the novel has a happy ending wherein the family's expectations are fulfilled

without much suffering. This aspect should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 revolutionary romantic idealism of the novels of the 1930s. The lack of suffering and the easy happy ending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Korea's industrialization came about rapidly and radically, and therefore it is likely that Lee Sun was not able fully to appreciate the full costs of industrialization. This limitation calls for a deeper investigation into the social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 of the 1970s, and also a study of the intertextual relationship of *Our Children* with other novels of the time.